

# “할머니 부축해드릴게요”

## 연꽃마을 '효도학당' 현장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그렇게 감동적이나” “꼭 한번 참가하고 싶다”

설날을 앞두고 서울을 물론 지방발 교학사회까지 확산된 '연꽃 효도학당'.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지난 해 12월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련한 효도학당이 지난 1월 26일 막을 내리자 뒤늦게 소식을 접한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궁금증과 아쉬움을 표했다. 무의탁 양로원 노인들과 함께 1박2일동안 생활하면서 효의 참다운 의미를 되새기는 '효도학당'

은 신세대 청소년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큰 몫을 해내 학부모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할머니들의 품속에 있는 순간이 행복해요”

지난 1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용인무로양로원. 환한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곁에 다가갔다 어깨를 주무르는 충주 황룡사 불교학행회 비주연·남궁정금양(이상 중주여중 2년)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집에서 이미 해왔던 일이어서인지 이들에게 전혀 낯선 일이 아니다. 하

만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며 할머니들에게 손을 내밀어 부축했다.

용인양로원 연꽃 효행학당을 거쳐 간 학생은 124명. 이들 모두가 친손자손녀처럼 효행을 펼쳐 할머니들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다. 청소년들이 가장 뭉클했던 시간은 할머니들이 혼자될 수 밖에 없었던 사연과 이국

## 중·고생 124명 참석 양로원 1박2일 생활

### “가족없는 노인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지만 생각처럼 쉽지않은 않았다. “처음에는 왠지 할머니들과 가까이하기 싫었습니다. 이상한 냄새도 나고 구질구질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도 할머니들처럼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 한결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들 여학생들도 보통 학생들처럼 스케이트도 타고 싶고 여행도 떠나고 싶은 꿈 많은 여고생이지만 이 효행학당을 위해 자신의 개인 일정을 모두 미뤄놓고 있다. 대신 시골할머니 찾아가는 마음으로 용인무로양로원을 찾았다. 입소첫날은 잘하는 법, 전화 받는 법에서부터 효도하는 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했다. 예절교육을 받고 난 청소년들은 지나가는 할머니를

지 곳을 전전해야만 했던 인생고를 눈물을 흘리며 털어 놓을 때였다.

장래 노인복지에 공부해 보고 싶다는 원인목군(충주 대원고 2년)은 “가족없이 이런 산골에서 혼자 지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던” 며 “이곳 양로원 할머니들 만큼이라도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편지도 쓰고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꽃마을측은 이번에 실시한 효도학당을 계기로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효도의 참다운 의미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인=김중근 기자

◇용인 양로원 효도학당에서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누고 인미하며 효행을 실천하는 학생들.

**신** 정토회 16일 '100일 기도' 입제

**행**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는 오는 16일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천 일결사 중 제4차 100일기도 입제식'을 봉행한다.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을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법문과 기도로

진행된다. 참가신청마감은 오는 11일까지. (02)581-4077

**소년소녀가장 가족캠프**

우리는 선우(공공대표 박광서·남지심)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소년소녀가장 가족캠프

(용기백배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에는 맛있는 음식만들기 및 콘테스트, 발매대회, 등반, 토론회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한편 이번 캠프에는 선우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소년소녀가장들과 즐거운 한때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 칼라믹스 무료특강**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어린이 칼라믹스 무료특강을 개설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학용품과 각종 생활소품들을 만들며 시간은 오후2시부터 3시까지. (02)985-0161



◇집해진 능력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공부방법 배우기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

## 길음복지관 '공부잘하기 특강' 개설

# “집중력 성적 좌우... 칭찬이 보약”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없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지상과제인 공부잘하기. 이러한 고민을 근본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강좌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은 지난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부잘하기 특강’을 개설했다. 공부잘하기 특강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잘하는 학생이 되도록 지도한다는 것이다. 복지관은 이번 특강을 이혼교육이 아닌 성격검사와 집중훈련을 통해 공부잘하는 근본요인을 찾자라는 취지로 마련했다. 첫날부터 공부를 잘하기 위한 본질찾기에 나선 학생, 학부모, 강사가 하나로 어우러졌다.

## ‘공부해라’ 강요 오히려 역효과 효과적인 공부법 7단계 소개 ‘눈길’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의 능력 찾기보다는 무작정 공부 잘해라고만 합니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역효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공부잘하는 비결은 학생들의 자신감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들은 자녀의 능력을 키워주고 북돋아 줘야 합니다.’ ‘공부잘하기의 참모습 알기’에 대한 김수형강사(숙명여대 학생생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의 강연이 시작되자 수강생들의 눈빛은 더욱 초롱초롱해졌다.

또 김강사는 “부모와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이들의 장단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 칭찬을 많이 할수록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자녀교육방법을 찾기 위해 아들 김승관(온곡중 1년)·송윤(온곡초등 6년)과 함께 왔다는 이예란(39·서울상계동)씨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될 지 궁금하던 중 이번 강좌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강좌에서는 효과적인 학습방법 7단계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첫째 공부내용 익숙해지기, 핵심과약하기, 능동적인 독서법, 효과적인 암기법, 내것 만들기, 나도 선생님, 심화학습이다.

이밖에도 성격검사(MBTI), 주의집중훈련, 공부방법 진단검사 등을 비롯 개인의 특성에

맞는 노트정리, 시험준비법 등의 효과적인 공부방법 강연도 진행됐다. 공부습관의 개선 및 공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이번 강좌의 특징이란 것이 복지관측의 얘기다.

이성희(43·서울 창동)·신현수(노곡중 2년) 모자는 “아이들에게 무작정 공부하라는 식의 지도방법보다는 취향을 고려해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배운 지도방법으로 지도하면 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실시된 ‘공부잘하기 특강’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교육지도방법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

# 만화 백 유 명 이 향 원

**거짓으로 죽은 여자**

옛날 한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다. 그러나 부인은 음탕한 마음을 감잡지 못하여 다른 남자에게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보, 중일 집안 일 하느라 피곤했지?

아무나요? 그래요!

어떤 여자의 시체라도 좋으니 여기에 갖다두고 남편한테는 내가 죽었다고 말해 주세요.

노파는 부탁 대로 시체를 구해 놓고

당신 아내는 이미 죽었어요. 내 아내가...

여보!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그냥 넘어가네 어리석진! 쫄쫄

남의 시체를 자신의 아내로 믿고 슬피 울며 화장을 한 다음

떠가루를 자루에 담아 꺼내고 밤늦으로 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못 남자들이 싫어져 버린 아내가 다시 돌아왔다

나예요 제가 돌아왔어요

당신이 누구요?

당신의 아내잖아요

무슨 소리요 내 아내를 벌써 죽였어요

잘 보세요 내가 진짜 당신 아내예요

쓸데없는 거짓말 말고 어서 나가시오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외도들의 샛별 말을 듣고 마음이 미혹하여 진실이라 여겨 바른 법을 들어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 「불자의집」 교패불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불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차량용도 있습니다. (유리후면에 부착)**

■ 보급방법 :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급가 : 1개당 1,000원

▲ 크기 : 6cm x 7.5cm

**특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 불교인들의 만남, 들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고독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이자임결혼연구원

어둠이 그리워되어 도시의 끝 자락을 쫓습니다.

침묵과 고뇌의 밤 수없이 직막을 깨뜨리고 공허한 가슴에 소울한 바람이 그대의 잃고 깨졌던 이슬이 되어 가슴으로 깎아 듭니다. 숨알바람 달맞이 향기 스미는 그대 창가에 풍일 끝 미디 그리움으로 영키어 기만이 내려왔을 밤 이슬이 되겠습니다. 머털리 파랑게 부서져 내린 파도들 얽고 서여의 먼 눈빛으로 깎아

원장 이자임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현영,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 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